

옛 독일 사운드, 유연한 21세기 지휘봉



© Marco Borgeggs

지난 봄 잠시 들렀던 드레스덴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열대 강변의 피렌체'란 별명답게 수려한 곳이었다. 나는 건물들의 시각적 미미지가 곧바로 청각적 미미지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 곳가에는 끊임없이 원점으로 음악이 돌아왔다. 화려하면서 고음스러운 바로크 양식의 크빙어 궁정과 쾰머오페를 가늠해 미켈란젤로, 켈렌카 등 이곳에 머물렀던 음악가들의 걸작들을 떠올렸다. 궁정악장 하이나켄의 '드레스덴 협주곡'이 그대로 눈 앞에 현현하는 상상을 했다.

오케스트라 관동에게 드레스덴은 낯익은 지명이다. 드레스덴 슈타츠포카펠레와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유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9세기에 창설됐다. 그 원형은 더욱 오래됐다. 15세기 시의회에서 모집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음악 현악회(Ratsmusik)'가 시초다.

1870년 11월 드레스덴에 최초의 관서토를 제베르베하우스같이 개관한다. 음악 예술의 향유자가 기존의 귀족에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올 겨울과 함께 이곳에서 연주를 시작한 제베르베하우스관현악단(Gewerbehausorchester)은 이후 드레스덴 필하모닉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교향악 콘서트를 중심으로 음악의 도시 전통을 이어가는데 일조했다. 오페라, 협주곡, 오라토리오 분야에서도 역시 활발히 연주한다.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자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작곡의 거장들이 이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했다.

헤르만 안스펠트(1871-1885), 미하엘 쾰머만(1885-1886), 예른스트 슈탈(1886-1890), 아우구스트 프렐러(1890-1903), 빌리 울렌(1903-1915), 예르빈 린트너(1915-1923), 요제프 구스타프 브라체크(1923-1924), 에두아르트 외리케(1924-1929), 볼 사인블루크(1929-1932), 베르너 라트비히(1932-1934), 파울 만 쾰렌(1934-1942), 카를 슈리히트(1942-1944), 게르하르트 비전휘터(1945-1946), 하인츠 봉가르츠(1947-1964), 홀스트 포스터(1964-1967), 쿠르트 마

주어(1967-1972), 귄터 헤르비히(1972-1977), 헤르베르트 케겔(1977-1985), 외르크 페터 바이글(1986-1994), 마셀 플라송(1994-1999), 마레 야노프스키(2000-2004), 리파엘 프루히트 부르고스(2004-2011) 등 드레스덴 필의 포디움은 정경한 지휘자들의 숲이다. 이를 위로 하고 2011년부터 음악감독을 맡은 이는 미하엘 잔데를링이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단원들은 잔데를링의 효율적인 리허설과 능률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지휘 스타일을 높이 평가한다. 바로, 현월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폭 넓은 스펙트럼의 레퍼토리를 지향하는 것도 물론이다. 그는 전통 있는 드레스덴 필의 사운드를 이어가면서 더욱 유연한 자세로 21세기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자다. 잔데를링의 계약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될 사실에서 악단과 지휘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첫 내한은 200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심자가 소년합창단과 함께 예술의전당에서 앙실간 페티 슈타미어 지휘로 모차르트 '레퀴엠'을, 로데리히 크라이제 지휘로 바흐 '마태 수난곡'을 연주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첫 단독 내한공연은 2008년 6월이었다. 리파엘 프루히트 부르고스가 지휘봉을 잡은 공연에서 먼저 미사 마이스키가 드보르자크 '젤로 협주곡'을 합연했다. 마이스키 특유의 화려하고 짙은 표현이 필적하고 진중함 관현악 위로 넘실거렸다.

냉전시대 구 동독 지역과 동구권 오케스트라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서방세계와 단절된 대신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했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시 75세의 거장 프뤼베키 지휘한 브람스 교향곡 4번도 그랬다. 옛 독일풍을 살려낸 명연으로 칭송받았다. 이날 앙코르 중 히메네스의 《루이 알론소의 결혼》 간주곡에서 프뤼베키는 강렬한 색채를 펼쳤다. 이후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프뤼베키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 K.Y.B.



© K.Y.B.

2013년 10월 30일,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미하엘 잔데를링과 내한했다. 베그너 《로엔그린》 3막 전주곡에서 안정감 있는 독일 사운드로 포문을 열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에서는 끈기 연마한 듯한 현악군의 일치된 사운드를 기반으로 기존의 해석보다 훨씬 건음악이 크고 여유 있는, 개성 만점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서둘러 듣고 정전적으로 넘어가며 4악장에서 폭발시키는 드레스덴 필의 연주에서 미하엘 잔데를링의 영민한 전략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들은 메인 레퍼토리와 어울리는 앙코르 곡이었던 차이콥스키 《에프게니 오네긴》 중 볼로네이즈로 마무리하며 짙은 전상을 남겼다.

이날은 협연자 율리아 피셔의 첫 내한공연이기도 했다. 제1안첸, 할러리 환과 더불어 여성 바이올리니스트의 트로이카로 꼽히는 연주자다. 피셔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손에 권 것처럼 완벽하게 해석해 냈다. 브람스 협주곡을 그 동안 술하게 들었지만 그토록 단단하면서도 능란한 연주는 실제 연주로는 처음 접했다. 많은 이들에게 감탄으로 기억될 공연이었다.

2015년 6월 공연에도 잔데를링이 동행했다. 브람스 교향곡 1번과 베토벤 교향곡 7번이 각각 메인 레퍼토리가 됐다. 역시 독일 레퍼토리는 중추하면서도 단단한 독일 악단 특유의 해석이 안정감이라는 믿음줄 준 공연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다크 초콜릿 같은 빛깔의 현악군이 안정감 있는 사운드의 기반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격제 적소에서 텅빈의 완급을 조절하는 잔데를링의 지휘는 음악을 고여 있게 하고 흐르게 하면서 생동감을 부여했다.

앙실간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4번을 연주했다. 서정성을 가득 품은 명상적인 연주였다. 세채와 힘을 머금은 프랑스 피아니즘이 발현했다. 담담하게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나누는 거장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앙코르로 들려준 기브리엘 포레의 '무언가'는 축축한 감수성 위에 또 한 방울의 동경을 떨어뜨려 듣는 의외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최근 두 차례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협연자들은 모두 잊혀지지 않는 감동한 추억으로 남았다. 이번엔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역시 기대된다.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의 특징으로 자리잡은 '탁월한 협연의 전통'을 계승할 책임자다.

글: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평론가)